



“오리살러” 26일 오후 1시께 오리 1000여마리를 싣고 터미널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 차량(1.3t)이 출구를 앞에 두고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무전대로 상무교에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송모(48)씨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일대에 2시간 동안 차량 혼잡이 빚어졌다.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의 조치 덕에 2차 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물보호소, 길고양이들에겐 장례식장

■ 광주 북구 동물보호소 새끼 고양이들의 현주소
치료 후 방사·입양 역할 불구 절반이상 사망
부족한 예산으로 수용에 한계 원론적 답변만

광주 동물보호소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상처입은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치료한 뒤 입양 또는 방사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동물 구호기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승으로 향하는 길고양이들의 집합소'로도 통한다. 더 나아가 일부 동물보호단체나 동물애호 시민들은 '길고양이 장례식장'이라는 비판도 서슴치 않는다. 주인에게 버려져 험한 시기를 보낸 뒤 새 삶을 찾아야 할 곳에서 죽음을 맞는 길고양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대체 왜 이런 상반된 입장에 놓이게 된 걸까.

26일 광주시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주인에게 버려진 뒤 동물보호소에 보호 중인 길고양이는 1110마리로, 이중 65.31%인 725마리(안락사 204마리·자연사 521마리)가 안락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새 주인의 품 속에 안긴 길고양이는 전체의 29.27%인 325마리에 불과했다. 고작 60마리(5.4%)만 중성화수술을 받은 뒤 방사됐을 뿐이다.

길고양이 10마리 중 6.5마리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동물보호소 공간과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신고로 들어오는 개체는 매일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보호법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나 자치구에서 승인한 보호소는 유기견·길고양이를 10일까지 보호하고 주인이나 입양자가 안 나타나면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해 '묵인'해주고 있는 셈이다.

현재 광주시동물보호소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한 해 예산은 2억 원. 인건비·사료비·약품비 등을 빼고 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호할 수 있는 공간도 한정된 탓에 적정 보호 개체 수는 개 120마리·고양이 30마리 등 150마리에 불과하다.

여름철 버려진 고양이 수가 급증하면서 동물보호소의 적정 보호 수가 거의 매일 초과되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보호소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어린 고양이 생애를 감안할 수준도 못된다. 현행법상 질병이 없고 생존가능성이 높은 3개월 이상된 고양이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뒤

다시 거리로 보낼 수 있는데, 보호소로 보내진 생후 3개월 미만의 고양이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고 이들의 경우 어미 고양이 보호를 받지 못하다보니 생존률이 훨씬 낮다는 게 보호소 측 설명이다.

올 들어 지난 22일 현재 길고양이 690마리 중 어린 고양이는 모두 370마리(54%)다. 이중 198마리(55.46%)가 죽었다.

동물보호소가 길고양이 죽음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해당 지자체가 길고양이에 대한 안락사와 자연사를 줄이려는 근본적 대책 없이 죽음으로만 내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 예산이 늘지 않는 한 안락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우리나라 5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지만 여전히 버려지는 동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참여율이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 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견은 ▲2011년(1193마리) ▲2012년(1333마리) ▲2013년(1606마리)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

광주 반려동물 등록 절반 수준

시행 1년 참여율 저조...시에선 단속 계도활동 손바

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유기견은 806마리. 전년 동기대비 9%4마리에 비해 158마리(감소율 16.39%)나 줄어든 수치다. 올해 유기견 발생률이 줄어들면서 '반려동물등록제'의 효과가 나타난 것 아

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현재 광주시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수 백 마리의 개가 보호소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동

물등록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단 한차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유기견 발생이 줄어든 원인을 동물등록제 효과로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착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단속과 계도 활동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1 해질 07:19
해짐 19:07 달림 19:46

소나기

구름 많고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우량은 5~60mm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림	21/28	보성	비온뒤 갬	21/26
목포	차차흐려져	21/26	순천	비온뒤 갬	22/28
여수	비온뒤 갬	23/26	영광	차차흐려져	21/27
나주	흐림	21/27	진도	흐리고가끔비	21/27
완도	흐림	22/27	전주	구름많음	21/27
구례	차차흐려져	21/28	군산	흐리고가끔비	21/26
강진	흐리고가끔비	21/27	남원	구름많음	21/27
해남	흐리고가끔비	21/27	축산도	흐림	21/25
장성	흐림	20/27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1.0	남서	0.5~1.0
남해	남서	0.5~1.0	남서	0.5~1.0

돌매

목포	미물	썰물
	03:16	08:27
15:23	20:34	
여수	09:57	03:44
	22:15	15:58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40
빨래	60

주간 날씨

28(목)	29(금)	30(토)	31(일)	9/1(월)	2(화)	3(수)
☀	☀	☀	☀	☀	☀	☀
21/25	21/27	21/28	21/28	22/28	21/27	22/26

軍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법정 소송 국가유공자 인정

법률구조공단서 지원도

군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얻은 이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에서 잇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 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강원도의 한 포병부대 훈련소에 입소했다.

훈련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군의관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입소 두달만에 자대로 배치됐고 곧 선임병들의 타격이 됐다.

A씨는 내무반 바로 옆자리에서 생활하던 조모 상병이 코를 골거나 조금 움직인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거나 발로 차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같은 부대의 한모 병장은 갑자기 A씨의 바지를 내리거나 뒤에서 끌어안으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식으로 성추행했다. 자대배치 두달여 만에 A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행위를 하는 조울

증 증상을 나타냈다.

A씨는 군 병원에 입원해서도 "나는 4차원보다 고차원이다", "맨유로 가야하는데 감정조절을 못해 병원에 왔다. 연봉 1800만원을 받는다"고 소리치는 등 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2009년 11월 의병 전역했다.

이후 A씨 측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광주지방보훈청에 신청했지만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 요청으로 각각 소송구제 절차에 착수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를 유공자로 인정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유공자 신청을 해도 보훈청은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가야 한다"며 "앞으로 공단은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발굴해 적극 소송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남뉴스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11월 (예정)

중도금 무이자

78/75

한자리에서 북구의 모든 실속을 누리려!

1. 실입주금 2천만원(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3. 용봉C 입방향 공사 예정(불편한 교통환경의 해소로 인한 미래까지 상승 요인)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2,000~4,000만원대)
5. 일괄청산이파트 총 1,400세대 분양전환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노블리
BONGSUNG

사명 (주) 동성노블리·(주)가성리츠 사명 동성종합건설(주)

위치 용봉C(순천방화) 용봉현대아파트 앞

문의전화 **385-3080**